

# 國家的 核心전략기술의 創造的 개발에 힘쓰시길



鄭元植

국무총리

오늘 제25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과학기술중흥의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만세기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科學技術立國의 일념을 불태우며 불철

주야 연구개발에 헌신해 오신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탁월한 연구성과와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오늘 영예의 大韓民國 科學技術賞과 과학기술 有功褒賞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

戰後 東西冷戰체제가 붕괴된 지금, 세계는 경제와 과학기술이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계각국은 技術保護主義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으면서, 저마다 독자적인 과학기술개발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한 核心戰略으로 과학기술개발에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으며, 특히 지난해 부터는 「科學技術革新 綜合對策」을 수립하여 이를 國政의 최우선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강력한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이 성

공을 거두게 되면 2000년까지에는 우리나라도 선진G7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부단한 연구개발 노력이 절실합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께서 정부와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 우리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혁신에 헌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우리가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주요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國家的 核心戰略技術의 창조적 개발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先進 G7권 진입을 가름하게 될 14개 핵심 선도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이를 최우선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만, 기업도 기계류·부품·소재기술의 개발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와 민간기업·대학·연구소 등 각 연구개발주체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으로써 우리의 한정된 연구개발능력을 조직화하고 과학기술혁신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분야에 대한 民·官의 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시키는 한편,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우르콰이라운드 협상」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어려워질 新國際技術秩序의 도래에 대비하여, 앞으로 2~3년내에 민간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개발활동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조세와 금융상의 지원을 대폭 확

대할 것입니다.

넷째,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더욱 주력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科學技術振興基金 조성에 박차를 가해 海外 고급두뇌의 유치는 물론, 국내인력의 해외연수등 優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 고자 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을 보다 내실화하여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北方제국의 기술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일입니다.

지금 과도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舊社會主義國家의 기술판매와 과학기술인력 유출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이들 나라와의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여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인적교류에도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에너지자원 확보·환경보호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는 열쇠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혁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입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지난 4 반세기동안 科學韓國의 미래를 개척해 오신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뜨거운 신념과 의지는 우리나라, 우리 겨레의 희망찬 내일을 기약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科學의 날」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국 과학기술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중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